



“ 2023년 무사안녕 풍요 기원 ”



송당리 본향당제

계묘년 정월대보름을 이틀 앞둔 2월3일 오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본향당에서 남승권 심방이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5호로 지정된 송당마을제 4대 당제 중 첫 번째인 '신과세제(新過歲祭)'를 올리고 있다.

연간 회기 일수 9회·125일 운영

“생산적 의정활동 펼칠 것”

제주특별자치도의의회가 지난 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제41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시작으로 올해 125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올해 연간 회기 일수는 총 9회 125일로 정례회 2회에 39일, 임시회 7회에 86일로 운영된다.

첫 회기인 제413회 임시회는 지난 달 24일부터 오는 3월8일까지 13일간 개최한다.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부터 올해 주요 업무를 보고 받게 되며, 202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회도 선임한다.

올해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2회에 걸쳐 4월 제414회 임시회와 9월 제418회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2회에 걸쳐 5월 제415회 임시회와 12월 제421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또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은 6월 제416회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는 10월 제419회 임시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은 11월 제420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뤄진다.

김경학 의장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의사 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 도민 중심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첫 임시회 개최...대표연설·업무보고 진행

27일부터 소관부서 업무보고 조례안등 71건 상임위서 심사

제주특별자치도의의회가 지난 2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올해 첫 임시회 제413회 임시회를 시작했다. 이번 413회 임시회는 3월8일까지 진행된다.

27일부터 시작되는 상임위원회별 회의에서는 도 소관부서와 도교육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과 청원, 보고의 건 등이 다뤄진다.

의원발의 조례안 23건과 도지사 제출 의원 39건, 교육감 제출 의안 9건

을 포함한 총 71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다.

상임위별 주요 안건을 보면 행정자치위원회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와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주 4·3평화문학상 등 조례 개정안이,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개정안과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등이 심사 예정돼 있다.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등이,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는 스포츠인권 조례와 문화예술진흥조례 개정안 등이 다뤄지게 된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근로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과 수

산자원관리 조례안 심사 등이, 교육위원회에서는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한 조례,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개정안 등이 다뤄진다.

김경학 의장은 “올 한해를 설계하는 도정 및 교육행정의 주요 업무를 꼼꼼히 살펴 민생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45명 모두가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따뜻한 소식들이 봄기운을 전해줍니다. 도민사회에서 튀르키예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지진 구호물품 수집을 위한 범시민 운동 등 정성어린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민의 따뜻한 온정이 전해져 신속한 복구와 치유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지면 안내

종합	▶1
제413회 임시회	▶2
교섭단체 대표연설	▶3
주요 이슈	▶4~5
상임위 이모저모	▶6~7
생생 의정활동	▶8~9
함께합시다	▶10~11
사무처소식	▶12

“민생 경제 한파 속 머물러, 위기 타개할 대책 절실”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24일 개최된 제413회 임시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정책과 정책 사이에는 힘겨운 삶의 현상이 있음을 명심하며 올해는 도민 앞에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학 의장은 “민생 경제는 여전히 한파 속에 머물러 있다”며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유 가격에 이어 상·하수도 요금까지 인상됐고, 치솟는 채솟값에 장바구니 물가는 휘청이고 식자재 가격 상승은 식음료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학 의장은 또 “농어민들은 면세유 급등에 관리 비용 상승, 인건비 부담까지 늘어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농사용 전기료는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고, 어민들은 고유가와 선

원난으로 힘든 상황에 정부의 대책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위기를 타개할 제주도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얼마전 농업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모색하기 위해 부여군을 방문했는데, 인프라 확충 뿐만 아니라 인력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 등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김경학 의장은 “제주에 적합한 외국인 농업인력 지원사업 모델을 도출, 농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며 “무엇보다 농업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제도를 속도감 있게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경학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15분 도시, 행정체제 개편, 대중교통



체제개편과 트램도입,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기반 조성 등 주요 정책들을 냉정하게 점검할 것”이라며 “예산 투자가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한 방향으

로 가고 있는지, 예산집행이 어렵거나 불용 또는 이월될 소지는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집행을 촉구하는 한편 대안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주지역 인구가 70만명 아래로 내려갔다. 순유출이 순유입을 넘어섰고, 저출산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투자지들과 귀농·귀촌인이 제주를 선택하는 데 주저하는 이유를 분석해야 한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주시고 기업하기 좋은 제주, 일자리가 많아지는 기회의 제주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경학 의장은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학생들은 많은 변화를 겪어야 했다”며 “맞춤 교육과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학교, 디지털 미래시대를 이끌어 나갈 인재 양성과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맞는 마케팅 강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3일 제413회 임시회에서 “2023년은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과들을 하나씩 일궈내

겠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아 제주의 기존 주력산업들을 강화하겠다”며 “국제선 직항 노선 재개와 크루즈 입항에 맞춰 제주관광의 해법을 모색하는 한편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맞는 마케팅을 강화하겠다”고 피력했다.

오영훈 지사는 “1차 산업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겠다”며 “농산물 수급 조절 모범 모델인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를 설립하고, 수급결정을 위한 과학적 데이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대의 환경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제주 외항 2단계 사업, 해녀의 건당 건립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오영훈 지사는 특히 “신속한 추경 편성을 통해 고물가·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경기 둔화에 대응하겠다”며 △지방공공요금 동결 △취업 기회 제공, 고용확대 △고향사랑기부제 등 전략적 재정 운용 △저소득층 지원 위한 금융포용 정책 강화 등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영훈 지사는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은 지속 가능한 제주를 만드는 대

전환의 동력”이라며 “그린 수소 생산 시설과 충전소 시운전을 3월부터 시작하고, 제1차 탄소 중립 기본 계획 수립,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확대 운영, ‘2040 플라스틱 섬, 제주’ 운동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에게는 청년주권회의와 청년자율예산 신설로 꿈과 희망 사다리를 놓으며, 생애주기별 돌봄서비스와 노인·아동 돌봄 체계 구축, 장애인 긴급 돌봄 사업 시행 등을 통해 도민 한 분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 키울 것”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아이들이 훌륭한 인성을 갖추고 학력을 높이며 미래를 설계하는 교육이 되도록 교육행정을 떠나 가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각오를 다졌다.

지난 24일 열린 제413회 임시회에서 김광수 교육감은 “정부의 방역체계 일부 조정으로 인해 3년만에 마스크 없는 온전한 새 학기를 맞이하게 됐다”며 “학교 현장의 부담을 낮추고 온전한 교육활동에 주안점을 둔 ‘2023학년도 신학기 학교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해 학교에 안내했다”고 말했다.

김광수 교육감은 또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창의력을 향상하고 코로나19로 떨어진 학력을 높이는 교육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자율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으로 아이들이 올바른 인성을 갖추고,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으로 보다 나은 내일이 되도록 개편된 조직을 통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광수 교육감은 올해 주요 추진 사업으로 △학력 진단 시스템 구축 및 기초학력지원센터,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학력향상지원협의체 구성 △중학교 1학년 대상 노트북 지원 △AI교육 선도학교 지원△디지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튜터 지원 △초등학교 대상 생존수영 교육

활성화 △비만 학생 건강회복 지원 사업 △오후 5시 이후 돌봄교실 운영 시범 사업 추진 등을 제시했다.

김광수 교육감은 “일선 학교 현장과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가족들은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위해 새 학기 준비에 헌신을 다하고 있다”며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의 실현을 위해 모두가 최선을 다하는 한편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해 도의회와 도를 비롯한 모든 기관과 더욱더 충실한 소통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의회-도 힘 합쳐 도민 고통 해결”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의원



제주 대내외 성장세 둔화와 고금리·고물가·부동산가격 하락세에 따른 소비감소로 자영업자를 포함한 많은 도민이 더욱 고통받게 될 상황입니다.

도의회와 도는 상설정책협의회를 통해 서로의 제안에 공감하며, 도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소통하고 협치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도의회와 도가 힘을 합치면 도민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음을 상설정책협의회를 통해 보여줬습니다.

제2공항 문제로 8년 가까이 도민사회에서 찬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왔고, 이 문제해결 없이는 도민 통합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제2공항 갈등 해소는 우리 도민의

집단지성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해 7월, 일본은 방사능 오염 물질을 당당하게 해양에 버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4면이 바다인 제주지역은 최고의 피해지역이 될 것이고, 연구용역에 따르면 제주 수산업계 피해액은 연간 4483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적극적으로 제소하는 등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목소리를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민선8기 제주도정에 지속가능한 제주발전을 위해 네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주의 자생력을 키우고 도

민의 의사가 반영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해야 합니다.

둘째, 지금의 제주를 ‘사람중심도시’에 초점을 맞춰 도시공간을 재설계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고부가가치의 관광산업을 포함한 미래 제주 먹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넷째, 제주형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여 도민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오영훈 도정에 당부드립니다. 성공적인 오지사의 도정을 위해 도의회와 진심어린 소통을 요청드립니다. 도의회와의 진심어린 소통이 제주발전의 시작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조성에 노력할 것”

국민의힘 강충룡 의원



15분 도시 제주는 민선8기 제주도정의 핵심 공약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개념 정립과 실천 방안에 의문이 이어집니다.

특히 15분 도시 제주의 실효성 측면에서 서귀포 지역의 낙후된 의료 인프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공항은 여야를 넘어 도정과 의회 그리고 도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 도민 이익 최대화, 갈등 최소화 원칙 아래 친환경 순수 민간 공항으로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국민의힘 북핵특위에 관한 논란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일각에서 언급되는 제주 제2공항을 군사공항으로 추진한다는 설은,

터무니없는 매우 악의적인 이야기일 뿐입니다.

제주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만감류 가격이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정책 수립과 추진이 필요합니다.

기존 비가림하우스 중심의 FTA기금 사업에 대한 평가와 함께 기존 사업에 대한 보완과 신규사업 발굴 등 제주 농정의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에

철회를 촉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지난 2015년부터 도비로 농산물 해상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난 8년간 지원된 물류비가 한해 농업인들이 부담하는 물류비의 12%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도서지역 특성을 반영한 국가 차원의 해상운송비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농업기반시설인 농업용수 문제 해소를 위해서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제주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개혁·미래교육 대응 철저히 기해야”

미래제주 강동우 교육의원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실현하는 핵심 중의 핵심은 ‘교육’입니다.

제주교육은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이라는 물살과 급격히 닥친 미래교육의 대응이라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제주 교육과정은 제주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인 ‘제주미래교육 비전 2030’과 제주 교육과정 개발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김광수 교육감이 강조하는 인성교육과 미래교육에 중점을 뒀어야 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교과학습 역량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학업성취도와 교과 역량 등 인지적 역량뿐만 아니라 사회·정서적 역량

등 비인지적 역량을 고루 갖춘 핵심 역량이 더 중요합니다.

고교학점제는 2025학년도부터 적용 시행됩니다.

지역적 한계로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하는데 한계가 있어 도농간 교육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모두가 안심하는 고교학점제를 실현하는 데 제대로 된 준비와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의회에서 서도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적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고교학점제 지원 방안을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제주도정부로부터 행정적 지원을 얻어

낼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주기를 바랍니다.

교육감께서는 돌봄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안전한 돌봄시스템 운영 내실화”공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과후학교는 학교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포화상태가 되었고, 학교 중심의 돌봄체계 확대·운영은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지자체와 학교는 물론 유관기관, 종교시설, 민간교육기관 등 지역의 가용자원을 활용한 촘촘하고 세밀한 보육·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 도의회, 도정, 교육청이 한 마음 한 뜻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주도의회, 활발한 입법활동 성과 돋보여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서 단체 우수상 최우수상 이승아 의원, 우수상 강철남·정민구 의원 수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의 활발한 입법활동 성과가 두각을 나타냈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이 지난 17일 아주대학교 율곡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단체 부문 '우수상', 개인부문 최우수상에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 우수상에 강철남(더불어민주당, 연동읍)·정민구(더불어민주당, 삼도1·삼도2동) 의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단체 부문 우수상으로 선정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 공개 조례'는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읍)이 발의했다.

지방의회가 보유 및 관리하는 각종 의정활동 정보에 관한 의회의 공개 의무와 도민 공개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의회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지침을 마련한 전국 최초

조례다.

개인 부문 최우수상에 이름을 올린 이승아 의원의 '제주특별자치도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기후변화에 대한 제주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연구, 교육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탄소중립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개인 부문 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은 강철남 의원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는 의원 당선인에 대하여 임기 개시 전에 체계적인 교육 연수를 실시하고, 의정활동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특히 전국 최초 조례로 동일 취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를 견인하는 등 모범정책의 전국 확산에 기여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정민구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호스피스 및 완화 의료 지원 조례'는 질 높은 생애 말기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자체와 도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말기 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호스피스 및 완화 의료 지원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김경학 의장은 "지역사회 발전 및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각종 조례를 발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도민 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기 위해 역량을 한데 모아 힘차게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지방자치학회는 매년 우수조례를 발굴하고 자치법규 입법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한 지방의회 의원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양영식 의원 지방정부 의정대상 '대상' 영예

(사)한국지방정부학회 선정 모범적 의정활동 높은 평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은 지난 10일 경남대학교에서 개최된 (사)한국지방정부학회 주관의 '2022년 지방정부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지방정부학회는 대상을 수상한 양영식 의원에게 대해 탁월한 의정역량과 활발한 의정활동 성과로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밝혔다. 양영식 의원은 제

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400회 현장방문을 기록했고 100%에 달하는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출석률을 보였다. 또한 적극적인 입법 활동의 일환으로 조례 제·개정 대표발의 27건, 공동발의 220건에 달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양영식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성실히 입법활동에 임하고자 노력한 결과를 좋게 평가해주셨다"며 "앞으로도 제주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도-도의회 '민생안정·제주도약' 손 맞잡아

13일 상설정책협의회 개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협력기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13일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올해 첫 상설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민생안정과 제주도약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협의된 주요 의제로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공동노력 △도-도의회 규제개혁 공동TF 구성 △농산물 물류비·전기요금 및 월동작물 피해 대책 마련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 구축 △'2040 플라스틱 제로섬 제주' 공동 추진 △'2025 APEC 정상회의' 등 6가지 사항이다.

오영훈 지사는 "고향사랑기부제 등

어느 것 하나 간단치 않은 의제들이지만 도와 도의회가 협력해낸다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며 "특히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 공동노력과 관련해 기후 위기 시대를 대응하는 자리로 만들어 나간다면 정상회의 유치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학 의장은 "지난 상설정책협의회 합의사항 중 사회 복지를 위한 '공공서비스 필수인력 확보' 등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조기에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하는 한편 "앞으로도 도와 도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 경제 회생과 제주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일제주인 보은 사업, 적극 도울 것”

도의회, 관동·관서도민회 신년회 참석
민단오사카부·1세대 요양시설 방문도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장을 비롯한 도의회 방문단이 코로나19로 중단됐다 3년 만에 재개한 재일본제주도민협회 신년인사회를 찾았다.

이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일본 방문단은 먼저 지난달 28일 도쿄에서 열린 관동도민협회(회장 양일훈) 신년인사회에 이어 29일에는 오사카로 이동해 관서도민협회(회장 양철사)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일본 방문단은 물심양면으로 제주를 지원했던 재일제주인 1세대에 고마움을 표하고, 의회 차원에서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히는 한편 4·3희생자 추가 신고 접수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경학 의장은 “재일본제주도민협회의 애향심과 헌신의 시절을 잊지 않고, 도에서 추진하는 재일제주인 공헌에 대한 보은 사업을 도와 제주인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나가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일본 방문에서는 재일본대한



민국민단 오사카부(단장 이원철)와 재일제주인 1세대 노인요양시설 ‘산보람’(이사장 고경일)도 찾았다.

김경학 의장은 “어려운 시절 제주

를 위해 도움 주신 은혜는 잊지 않겠다”며 “의회 차원에서 재일제주인 사회의 발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2가 백신 접종 권장 “재유행 막아야”

김경학 의장 추가 접종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장이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홍보를 위해 ‘오미크론 대응 2가 백신’ 접종에 나섰다. 김경학 의장은 지난달 20일 도내 한 의료기관에서 동절기 2가 백신 추가접종을 맞았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재유행을 막고 위·중증 완화율을 낮추기 위해 2가 백신 접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특히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60대 이상 고령자는 위·중증화와 사망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동절기 2가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절기 2가 백신은 초기 유행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현재 유행하는 오미크론 변이를 모두 포함한 개량 백신으로, 질병관리청 임상자료에 따르면 기존 단가백신보다 효과성과 안정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학 의장은 “코로나19 재유행을 막기 위해 도민들이 효과적이고 안전한 동절기 백신 추가 접종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4·3유족회와 열린 자세로 소통할 것”

김경학 의장, 신임 임원진과 면담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장은 지난 6일 오후 제주4·3희생자 유족회 신임 임원진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에서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 김창범 회장을 비롯해 백태보 내무부회장, 양성주 외무부회장, 양상우 사업부회장, 김윤숙 여성부회장, 김성준 사무처장, 홍성효 감사, 양윤정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이날 유족회 임원진과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현황과 보완입법의 필요성 등 4·3 주요 현안, 과제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김창범 유족회장은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에 제주도의회가 큰 역할을 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4·3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도 전국 시·도 의회가 함께 정파를 떠나 같은 목소리를 낸 것이 큰 힘이 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경학 의장은 “4·3유족회의 부단한 노력으로 제주4·3이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 같다”며 “4·3을 후세에 알리는 등 4·3의 세계화에 노력하고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유족보상에 소홀함이 없도록 유족회와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4·3특별위, 출범 30주년 기념행사 추진

13일 준비위원회 구성
다양한 행사 진행 예정

올해로 출범 30주년을 맞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 권, 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가 기념행사를 위한 준비위원을 위촉하는 등 준비에 나섰다.

이에 따라 한 권 위원장은 지난 13일 의원실에서 ‘출범 30주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4·3특별위원회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강하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4·3 실무위원회 강덕환 위원, 제주4·3기념사업회 강호진 위원장, 제주4·3희생자유족회 양성주 외무부회장을 준

비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날 준비위원을 위촉한데 이어 4·3특별위원회 활동사진 전시회 등 기념 행사 구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추진 방향과 일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 권 위원장은 “4·3특별위원회가 4·3문제 해결을 위해 펼쳐온 지난 30여년의 의정활동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4·3특별위원회는 오는 3월2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학생, 청년을 비롯한 미래세대 등 전 도민의 참여와 공감을 이끄는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도의회-인천시의회 상호 교류협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경호, 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는 지난 2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호 교류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양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호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

하고, 예산결산심사 및 지방재정운용 등 지방의회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정보교환과 고향사랑기부금 홍보의 시간을 가졌다.

양경호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주도의회와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회의의 상호 교류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민의 문화권 보장 & 제주의 문화적 가치 확산 가능성과 과제는?
문화영향평가 활성화 운영을 위한 정책간담회**

○ 일시 | 2023. 1. 30(월) 14:00~16:00 ○ 장소 | 제주문화관 대강당 ○ 주최·주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적 가치 확산 과제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월30일 문화영향평가 활성화 간담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승아, 더불어민주당, 오라동)는 지난달 30일 제주문화관 대강당에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공동으로 '문화영향평가 활성화 운영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문화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의 이해를 제고시키고 도내 문화영향평가 대상 정책사업 발굴 및 적용 방안 논의 등을 통해 제주의 문화적 가치 확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김연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공간연구실 연구위원은 '문화영향평가의 의의와 효과' 주제 발표를 통해 "문화영향평가로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문화공간과 문화프로그램이 포함될 수 있다"며 "다양한 문화가 자유롭게 피어나고, 융합과 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문화영향평가를 통

해 주민과 전문가, 정책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 홍보를 통해 기관 및 지역의 이미지 제고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승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하상우 제주도 정책기획관, 오효선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오성율 도 문화체육교육국장, 문순덕 제주연구원 석좌연구원, 고영만 세계유산본부장, 강경택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이 패널로 참여해 제주도내 문화영향평가 대상 정책사업 발굴과 적용 방안

에 대한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승아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개발위주로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문화가치 파괴가 우려되고 있으며, 기존 제주문화의 정체성이 많이 퇴색되고 있다"며 "오늘 자리를 통해 문화영향평가가 앞으로 제주가 시행하는 사업이나 계획에 있어서 제주사회의 문화특수성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인지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행정자치위원회 역량 강화 워크숍 마련

주요 현안사항 등 공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 더불어민주당, 연동을)는 지난 3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의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행정자치위원회 주요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접근 및 설계 전략',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과정과 향후 정책 대응 방향' 등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뤄졌고, 이어 의원들의 질의·응답 및 토론이 진행됐다.

강철남 행정자치위원회장은 "이번 워크숍은 위원회 소관 현안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인력난 해법 '현장'서 찾아

김경학 의장·한동수 의원 시범사업 추진 현장 방문

제주형 계절근로사업 도입을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현장에서 그 해법을 찾기 위해 타 지역 방문에 나섰다.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과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이 지난 14일 제주도 농업인력 담당자, 구좌농협 관계자들과 함께 충남 부여군 공공형 계절근로자 숙소를 직접 방문, 공공형 계절근로자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장·단점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충남 부여군은 지난해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처음으로 도입, 필리핀 코르도바시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45명의 계절 근로자를 고용, 안정적 운영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동수 의원은 "부여군을 와보니

외국 지자체와의 협약 내용뿐만 아니라 인력관리와 운용에 있어서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며 "농업 인력 부족상황을 고려할 때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도의 지원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며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경학 의장은 "외국인 인력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숙박이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현장을 와보니 인력을 운용하는 지역 농협에서는 그 한계가 있을 것이라 느꼈다"며 "농업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숙박시설 등 관련 인프라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지역에 적합한 외국인 농업인력 지원사업 모델을 도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예술고 및 체육중·고 운영 방안 모색

교육위원회, 타시·도 견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창식, 교육의원, 제주시 서부)는 지난 1~2월 도내 예술고 설립 및 체육중·고 설립 또는 전환 추진과 관련해 도외 예술고 및 체육중·고 방문에 나섰다.

이번 도외 방문은 제주도교육청 관련 TF팀 위원들과 함께한 것으로, 타시·도 예술고 및 체육중·고의 운영 현황, 학생 층원, 교육 과정 운영, 진로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방문에서 인천예고, 경기예고, 인천대중예술고 등 예술고 3개교와 인천체고, 서울체고, 경기체고 등 체육고 10개교를 둘러보는 한편 전라권 및 강원권 학교의 운영상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공유해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 방식 등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

김창식 위원장은 "이번 도외 현장 방문을 통해 예술고 및 체육중·고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심도있게 논의해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술고 및 체육중·고 운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조례 개정 도민 의견 모아

환경도시위원회 16일, 2차 토론회 내부 논의 거쳐 안건 상정 결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 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는 16일 오후 2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2차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도의회에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앞서 1월에 열린 1차 토론회에서 도출된 주요 사안에 대해 관련 부서와 지역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는 "어떻게 해서 건축 제한 기준이 표고 300m로 정해졌는지 모르겠다"며 "보통 200고지에서 600고지 사이를 증산간이라고 하는데 그 기준도 아니고, 애매하게 결정해 원칙과 형평성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강진영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은 난

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와 장치 마련에는 동의하면서도 상위법 및 도시계획과 연동될 것을 주문했다.

강 위원장은 "난개발 방지는 필요하지만 조례는 도시개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시 초천읍 와흘리 주민은 "해발 300m 이상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2층 이하 건물만 지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해당 지역에만 규제를 더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1~2차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논의한 뒤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은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상정해서 다룰 것인지를 소속 위원들과 전문위원실과 함께 논의할 것"이라며 "상정을 안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또 다른 논란이 된다. 상정이 되더라도 바로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 과정에서 재차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말했다.

택배 표준도선료 조례안 심의 1년 연장

도의회 농수축경제위 결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 국민의힘, 표선면)는 지난 20일 제412회 임시회 폐회 중 회의를 열고 지난해 3월 청구수리된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도선료 조례안'에 대해 심의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3월4일 제주도민 3,326명의 청구로 발의된 해당 조례안은 택배업체마다 임의로 정하는 특수배송비에 대해 도지사가 실태조사, 전담부서 설치, 산정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표준 특수배송비를 지정하고, 제주 지역 택배 사업주들에 대한 물류센터 부지 신설과 이전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주민발안조례는 청구 수리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하며

이번에 연장되지 않았다면 3월31자로 자동 폐기된다.

제주도는 "추가배송비의 합리적 부담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상위법이 정한 사항과 조례의 효력 범위를 벗어나는 점, 택배비는 택배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개정을 통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강연호 위원장은 "현재 발의된 조례안은 다수의 항목에 수정이 불가피하며, 심사기간 1년 연장을 통해 청구인과 집행부, 도의회 간 구체적인 논의과정을 거칠 예정"이라며 "상위법과 조례의 효력이 적용 가능한 범위에서 조례 내용을 수정, 제주도민들의 추가배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워크숍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 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가 지난 8일 의사당 1층 소회의실에서 2023년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올해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정활동 방향 모색 및 사회복지, 보건·안전분야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점검과 대안 발굴 등 의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보건 분야 조직개편에 대한 향후 과제 등에 대한 정책연구위원별 주제발표, 토론이 진행됐다.

김경미 위원장은 "2023년도 첫 업무보고를 앞두고 위원회 소관 정책사업과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던 자리"라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역량을 강화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모두 함께 해요~!

제주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 고향, 지역생산자 모두에 도움을 주는 1석 3조의 행복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거주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주민 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부방법 고향사랑e음 전국 농협은행 방문·신청

이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역사·문화 자원 활용 '지역 브랜드화' 기대

지역문화특화발전연구회
1월30일 정책토론회 진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역문화특화발전연구회'(대표의원 양용만, 국민의힘, 한림읍)는 지난 달 30일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근현대건축물과 역사·문화자원 연계 지역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제주시 서부지역 애월읍과 한림읍을 중심으로 추진된 '근현대 건축물의 역사·문화성 연구 및 활성화 방안' 용역 결과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 이슈 해결을 위한 정책 협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용역에서는 지역마다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역사·문화적인 의미와 함께 차별성이 높음에도 지역 브랜드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이 지적됐다.

애월읍의 향파두리, 한림읍의 테쉬폰 건축물의 경우 로컬브랜드로서 경제적 활용, 관광산업에서의 활용, 교육적 활용, 문화적 활용 과제를 구

체화할 수 있도록 과제별 세부 방안도 제시됐다.

양용만 대표의원은 "돈 사육과 역사적으로 관련된 테쉬폰 건축물을 활용한 브랜드 전략을 통해 테쉬폰 건축물이 로컬브랜드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봉직 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은 "향파두리 향목유적은 주민들의 토지를 저렴하게 매입했으나 상생사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향후 문화재청과 협의를 통해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관리하는 등 주민상생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주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은 타 지역과 차별되는 고유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지녔다"며 "도시재생이나 마을만들기 사업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문화가 특화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포츠투어리즘...제주 성장 동력"

체육발전연구회, 토론회 마련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부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체육발전연구회(대표의원 홍인숙, 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는 지난 10일 대회의실에서 '제주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 스포츠 투어리즘'을 주제로 제4차 체육발전연구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승호 한국스포츠CMS 대표는 주제발표를 통해 스포츠투어리즘이 제주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블루오션'이라고 강조했다.

서 대표는 "제주가 자연환경과 지리적 여건, 무형자산을 토대로 신규 블루오션 시장을 창출해낼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췄다"며 "기존의 전지훈련과 스포츠 관광에서 나아가 제

주형 스포츠산업으로 캠프투어나 스포츠투어리즘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체계적인 다목적 시설을 조성하는 한편 규모를 확장시켜 제주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련 조례를 보완하고 예산 유치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인숙 대표의원은 "급변하는 트렌드 속에서 시장이 다변화되고 있으며 스포츠산업 역시 예외가 될 수 없기에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관점의 산업 육성방안이 나와야 할 시점"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스포츠 투어리즘 개념 정립과 스포츠투어리즘을 위한 장기 플랜 마련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등 구체적인 정책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회보장특별위원회 핵심과제 선정

간병 서비스 등 지역 현안 확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보장특별위원회(위원장 현지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지난 14일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를 통해 사회보장특별위원회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간병 서비스의 문제점 해소 및 제도화 방안, 특수교육 및 특수치료 인력 확보 방안, 고령장애인 개념 정립을 통한 지원 근거 마련 등 세 가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이날 이남근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간병인의 근로자 자격 요건, 제도 미비 등으로 인해 도민들이 경험하는 간병인과의 갈등 상황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며 해결 방안의 필요성을 밝히는 한편 "사회보장특별위원회를 통해 타 시도의 모범이

되는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경흠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을)은 "간병인서비스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크다.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정책 발굴을 주문하는 한편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장애 유형에 따른 고령화 속도가 다르지만 실태 조사나 정책은 전무하다"고 꼬집으며 장애 유형에 따른 고령장애인의 정의와 개념 정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강상수 의원(국민의힘, 정방·중앙·천지·서흥동)과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특수 치료 인력 양성 및 특수치료학과 설치 등을 주문했다. 현지홍 위원장은 "첫 업무보고를 통해 제주의 현안을 확인하고 사회보장특별위원회의 방향성이 제시됐다고 생각한다"며 "핵심 과제 해결을 통해 도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 정기총회 열려

올해 3개 주제 토론회 개최 예정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모색할 것"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대표의원 송창권, 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이 지난달 26일 도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참여의원 소개와 더불어 2023년도 연구 활동계획 보고, 토론회 주제 선정,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과제 선정, 기타사항을 논의했다.

올해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에서 다룰 토론회 주제로는 △제주수산업계의 최대 현안사항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지자체간 해상경계설정에 앞서 제주도 바다자치 실현을 위한 대응방안 모색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생태법

인 제도 도입을 위한 돌고래 생태허브 조성방안이 선정됐다.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으로는 제주도 해양문화를 전승·보존·계승하기 위한 해양관광산업 육성 및 해양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이 선정됐다.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간 연구용역을 통해 도민들이 해양을 통해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추진하게 된다.

송창권 대표의원은 "올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로 인해 수산업계가 위기에 놓여 있고, 지자체간 해양경계설정에 대한 국회 입법이 이뤄지고 있으며, 해양보호생물인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도민공감대 형성 이 절실하다"며 "제주도 해양수산 현안사항 및 해양정책에 대한 심층적인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제주해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인재 육성 다양한 의견 제시

제주교육발전연구회 20일
다문화영재 발굴 정책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제주교육발전연구회(대표의원 정이운, 교육의원, 서귀포시서부)는 지난 20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 다문화 영재 학생 발굴 및 지원 모색' 주제의 다문화가정 및 학생 종합지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다문화 가정 및 학생에 대한 종합지원 정책을 검토하는 한편 영재 학생 발굴 및 지원 방안에 대해 관련 기관·단체장 등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이운 대표의원이 좌장을 맡고 이해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장, 김창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장, 정성중 제주국제교육원 원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정성중 제주국제교육원 원장은 "교사가 다문화가정과 다문화가정의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 낮은

인식, 전문성이 영재학생 발굴과 육성하는데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다문화가정의 학부모들이 영재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그 참여방법은 모르고 있다. 홍보 및 안내가 저조하기 때문"이라고 자체 영재교육 운영방안을 내놓았다.

황석규 (사)제주다문화교육복지연구회장은 "다문화교육은 중등학교로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인재발굴과 양성은 공교육에서 진행될 때 교사와 친구가 가장 주요한 매개이며, 이들과의 관계에서 발굴된다. 결국, 공교육의 현장은 학교이고 학교는 다문화 친화적 환경조성과 상호 관계를 통해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이운 대표의원은 "다문화 가정 및 학생 증가에 따른 기관과 단체들이 정책사업 추진과 더불어 학습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지원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우리 모두 제주의 아이들을 제주 인재로 육성하는 데 힘을 합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그린산업' 위해 힘 모은다

기후위기대응탄소중립연구포럼
한국재료학회와 업무협약 맺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연구포럼(대표의원 이승아, 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지난달 26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한국재료학회 세계재료총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손창식)와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제주형 탄소중립 실현과 그린산업 육성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미래 그린재료 산업 분야의 육성을 위해 협력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다짐하면서 협약서에 함께 서명했다.

이승아 대표의원은 "제주형 탄소중

립사회 실현을 위해 제주도, 중앙정부 그리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회 등과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며 "세계재료총회 조직위원회와의 협약으로 제주가 진정한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재료학회는 재료 분야 연구자로 구성된 재료 분야의 대표적인 학술단체로, 금속재료, 세라믹재료, 신소재 등 산업발전에 필수적인 재료 공학에 관한 학술연구 발표 및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산업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오는 6월6일부터 9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한국재료학회가 주최하는 세계재료총회가 예정돼 있다.

보육 교직원 권리 보호 방안 모색

포용복지연구공동체포럼 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포용복지연구공동체포럼'(대표의원 이경심,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7일 대회의실에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보육교직원의 권리 침해 실태 및 권익보호 요구를 살펴봄으로써 보육교직원의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은정 제주국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가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 주제 발표에 나선데 이어 이경심 대표의원이 좌장을 맡고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집연합회, 어린이집 교사,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 학부모 등이 참석해

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 안정적 보육 노동 환경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를 위해 영유아 대 교사 비율 조정, 보육교사 업무량 축소, 보조 인력 지원 확대 및 보육교사 적정 임금 지급,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 전문적 자질을 갖춘 교원 양성 및 지속적인 역량 강화 등이 주문됐다.

이경심 대표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육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노동존중사회 실현 첫걸음 환영"

제주 노동존중사회 의원연구포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제주 노동존중사회 의원연구포럼'(대표의원 이상봉, 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은 지난 16일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노정협의회 구성 등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하여 첫 걸음을 내딛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노조 합의를 환영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제주 노동존중사회 의원연구포럼은 이날 논평을 통해 "노동자들의 천막농성이 다행히도 100일을 넘기지

않은 시점에 지사와 노조의 면담이 성사되고, 노정협의회 구성에 대해 합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의 의사를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합의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위탁사업의 종료시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관련 제도 마련과 사회적 관심을 촉발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향후 노정협의회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이 전폭적으로 반영되는 등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과 지원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지속가능발전연구회 정기총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제주지속가능발전연구회'(대표의원 임정은, 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는 지난 15일 도의회 소통마당에서 2023년 정기총회를 갖고 연구단체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임정은 대표의원은 이날 "아직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았지만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이 일상으로 돌아왔다"며 "고물가·고금리·고유가에 겨울 난

방비 폭탄까지 더해져 삶은 여전히 팍팍하다"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제주지속가능발전연구회는 제주의 자연환경 보전 뿐만 아니라 사회 및 경제 발전 실현으로 도민의 삶의 질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특정 주제에 국한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제주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엔데믹 시대, 제주관광 대전환을 준비하자

코로나가 대유행한 지난 3년간 관광산업은 위기와 기회를 넘나드는 혼돈의 시간이었다. 내국인 관광객은 증가하며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나 코로나 엔데믹 시점에서 내국인의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연일 커지면서 위기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중앙언론에서 제주관광의 질적 하락, 바가지 요금 등의 보도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며 제주관광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내국인 관광객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대체할 해외시장에 대한 전략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특히, 업계 간 양극화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제주관광은 총체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코로나 특수를 누린 골프장업계의



이 승 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

경우도 도민 내장객은 소폭 증가하고 있지만 신뢰도 하락으로 내국인 골프관광객은 해외로 발길을 돌리는 모양새다. 또한 제주관광진흥기금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정상화도 요원하다.

일본, 태국 등 아시아 카지노 개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어 정상화도 가기까지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제주도정은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 비전과 전략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시대를 거치며 심각한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를 비

내국인 해외 여행 수요 증가
업계 간 양극화 등 위기
정책 전략에 심혈 기울여야

롯해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행정적으로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극복 해결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국제기점 항공노선 수요회복을 위해서는 전세기, 직항노선에 대한 정부와의 유기적인 협력 및 관련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근 한국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조치를 해제하면서 중국관광객 교류의 청신호가 켜진 것이 그나마 위안이다.

코로나 이전에도 제주는 해외 시장

이 중국시장에 편중되어 있어 정치적 이슈에 흔들리는 구조적 문제, 면세점 중심 소비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제주관광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강화에 무게를 두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미래수요에 대비한 관광수용태세 준비를 위해서 제주도정은 양극화로 대두되는 관광생태계의 취약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를 통해 관광산업 생태계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들을 만들고, 제주 관광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발굴에 대한 고민을 기반으로 경쟁력 있는 미래 관광시스템 구축에 힘쓰는 등 엔데믹 시대 제주관광의 대전환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23년 공익직불제 신청시 유의사항

2023년 기본형 공익 직불금 신청 접수가 2월1일부터 시작됐다. 2월 28일까지는 스마트폰, PC 등을 통한 비대면 간편 신청으로 진행되며 올해 처음으로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신청 방식이 도입돼 농업인이 직불금을 좀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모든 농가가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간편 신청 대상자는 2022년의 기본 직불 등록정보와 2023년 등록정보가 일치하고 변경사항이 없는 농가 또는 농업인이다. 3월2일부터 4월28일까지



부 효 심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 주무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의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신규 신청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실경작 여부

종전 직불금 지급 실적 없어도
신청 가능해져
4월28일까지 접수

에 대한 심사가 강화된다. 마을의 이·통장은 경작사실 확인서 제출 요청을 받았을 때 마을 농업인 2명과 함께 해당 농업인이 해당 필지에서 실경작이 확실한 경우 서명 및 발급하고 발급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공익 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신청해야 하며 농업에 직접 이용하지 않는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공익 직불금 신청(2월1일~4월28일)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 사항 이행점검을 거쳐 지급 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 절차를 거친다. 시행 4년 차를 맞이한 공익 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들이 누락 없이 직불금을 신청하길 바라며, 모두의 협조를 당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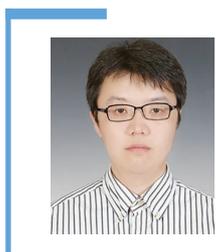
노년기 건강관리 고민하시나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정책적·사회적 이슈는 무엇일까. 살아가는 환경 및 직업에 따라 다양한 고민을 하겠지만, 보건 계통에 종사하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최우선 순위는 '저출산, 고령화'이다.

이 문제는 비단 보건의료 종사자들만의 고민은 아닐 것이다.

대한민국은 2023년 기준으로 65세이상 인구비율이 18.1%인 고령화 사회이며, 이 추세로 고령화가 진행된다면 2024~2025년에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게 된다.

초고령사회가 된다면 여러 가지 사



오 봉 철

제주특별자치도 동부보건소 주무관

회적 환경이 변화하게 되는데, 고령자 본인의 입장에서 가장 큰 관심거리는 단연 노년기 건강관리일 것이다. 노년기에 건강관리를 한다는 것이, 이미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건강은 당연히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평상시 영양

방문간호 서비스사업
치매관련사업 등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관리, 운동관리를 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정신 없이 살다보니 어느새 병들고 약해진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대다수 일반 서민들의 삶이다.

보건소에서는 이러한 건강 약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보

건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방문간호 서비스사업은 복지사가 지대에 놓여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혈압, 혈당 관리, 약 복용 교육 등) 제공을 통해 건강약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재가 암 환자, 재가장애인, 허약노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관련사업(선별검사, 의료비 지원 등)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본인의 건강이 걱정된다면 관할 보건소로 연락해 문의해 보길 바란다.



도의회 음부즈맨 전체회의 열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3일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6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음부즈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2023년도 활동 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연간 활동 계획에는 음부즈맨 개별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연말 우수 음부즈맨에 대한 표창패 수여, 분과위원회 현장 방문 등 활동계획, 운영위원회 활동 계획 등이 포함됐다. 또한 이날 음부즈맨의 역량강화를 위해 박원철 전 제주특별자치도 의원을 초청, 소통의 가교로서의 음부즈맨의 역할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김경학 의장은 “음부즈맨은 의회와 도민을 연결하는 가교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며 “시민감시관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더욱 열심히 뛰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출범한 제6기 도의회 음부즈맨은 지금까지 운영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는 한편 지난 1월말 기준 27건의 활발한 제안·제보 활동을 펼쳤다.

“의장님과의 진솔한 대화, 너무 좋았다”

도의회 2월 공감·소통의 날 치유콘서트 등 직원 호응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화 바뀐 공감·소통의 날을 선보이며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1일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월 공감·소통의 날 행사는 ‘밀레니얼 세대(1981~1996년 출생)’ 직원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는 내부 방송을 통해 중계됐으며

며 전 직원이 공감하는 시간으로 꾸러졌다. 일반적인 의장님 당부 말씀이 주를 이뤘던 기존의 형식과 틀에서 벗어나 밀레니얼세대와의 ‘공감적 소통’이 시도됐다.

‘치유콘서트’로 직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한편 김경학 의장과의 소통의 장이 펼쳐졌다. 직원들이 평소 궁금했던 점들을 풀어놓으면, 김경학 의장은 ‘인생 선배’로서 조언과 당부를 남겼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의

장님과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진 진솔한 대화가 너무 좋았다”며 “앞으로도 ‘우리’ 이야기들을 말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경학 의장은 “2023년은 여러분들과 직접 소통하며 작은 소리 하나 하나에 귀 기울여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여러분도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 등이 생긴다면 대해 형식과 방법에 관계 없이 언제든지 이야기 해달라”고 말했다.

제주지역 주요 정책 과제 한눈에

도의회, 「정책연구」 제6호 발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과 오영훈 지사의 제주지역 관련 공약사항 등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엮은 「정책연구」 제6호를 펴냈다.

「정책연구」 제6호는 지난해 3월과

6월에 각각 치러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오 지사가 내세운 공약들의 실현 가능성 및 이행실태를 점검하는데 중점을 뒀다.

세부적으로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제주정책과제 중 2개 과제 ‘신항만 건설을 통한 해양경제 도시 조성’과 ‘제주형 미래산업 육성’에 대해 조사·분석이 이뤄졌다. 또한 민선8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정책과제 중 5개 과제에 대한 분석결과를 수록했다.

제주 도시·교통 문제연구회 올해 활동 시작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제주 도시·교통 문제 연구회’(대표의원 양경호, 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는 지난 23일 1층 소회의실에서 2023년도 정기총회를 갖고 연구단체 활동 시작을 알렸다.

지난해 8월 창립총회를 갖고 출발을 알린 ‘제주 도시·교통 문제 연구회’는 이번 정기총회를 통해 올해 예산과 연구 활동 계획을 승인하며 올해 활동을 시작했다.

양경호 대표의원은 “15분 도시를 비롯해 수소트램과 같은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이 검토되고 있으며 대중교통체계 및 택시, 개인이동수단 등 다양한 교통 문제와 도시 계획이 부재한 상황에서 개발되는 난개발 문제 등 제주는 많은 교통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올해 사람 중심 교통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고민하는 해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돕기 동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전달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시리아 국민을 돕기 위해 힘을 보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의원과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성금 676만원을 마련하고 21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한 성금은 삶의 터전을 잃고 위험에 노출된 튀르키예·시리아 피난민 지원 및 시설 피해 복구에 사용될 예정이다.

성금을 전달한 김경학 의장은 “구호활동이 신속히 이뤄지고 이재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성금 기부 동참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매년 연말연시 이웃 사랑 나눔 성금 기부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경북·강원 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 돕기에도 동참하는 등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관심을 갖고 지원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